

강진 육아수당 '효과'...아기 울음소리 늘었다

작년 10월부터 시행...전국 최고금액·최장기간 지급 전년비 출생등록 40.6% 증가...다양한 정책 시행 중

강진군이 역점 시행 중인 육아수당 정책이 출생아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강진군에 따르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육아수당을 지급, 9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출산 증가에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군 인구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육아수당 시행 1년 전인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0명이 태어난 반면, 육아수당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88명이 출생했다. 강진군의 육아수당은 2022년 1월부터 출생한 아이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자녀 1명 당 월 60만

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생후 8개월까지 최대 5천400만원을 지급해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고 금액, 최장 기간을 자랑한다. 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 현재까지 누적 120명에게 7천560만원을 지역 경제 활성화를 고려해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하고 있다. 임준형 군민행복과장은 "같은 기간 출생등록자 수가 전남 27%, 전국 44.9% 감소한 반면, 강진의 경우 40.6% 증가했다"며 "육아수당 시행 이후 강진으로의

전입 초과 현상에 따른 사회적 이동역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군은 출산 육아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먼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2주간 154만원,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자의 경우 산후 조리비로 100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으며, 아이를 낳는 출산 가정에는 국민행복카드로 200만원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과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는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로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경우 만 0세까지는 부모 급여 70만원을, 만 1세까지는 3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군은 또 기저귀와 체온계 등 1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제공하고 고위험 임부에는 산후 조리비로 100만원을 각각 해당 자에 대해 지원한다. 이 밖에 난임부부 시술비 110만원, 한방 난임 치료 시술비 120만원,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200만원도 지원한다. /강진=정영록 기자

군은 육아수당 시행 1주년이 되는 오는 10월 부모 간담회와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육아수당 지급 이후의 실질적인 변화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성도 모색할 예정이다. 강진읍 군수는 "인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모든 과정은 단순히 한 가정의 책임이 아니라, 보다 안전한 사회망과 출산 장려 시스템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육아수당이 실제 출생아 증가로 이어진 만큼, 강진군의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함평군 '돌머리지구 어촌뉴딜 300' 사업이 공정을 80%를 보이며 어촌-어항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은 돌머리해수욕장 전경. <함평군 제공>

함평 '돌머리지구 어촌뉴딜 300' 순조

공정률 80%...내달 해수욕장 개장 맞춰 해수찜센터도 운영

함평군이 역점 추진 중인 '돌머리지구 어촌뉴딜 300' 사업이 공정을 80%를 보이며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20일 함평군에 따르면 '어촌뉴딜 300'은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이다. 주요 사업은 ▲해안 안전시설 확충 ▲돌머리 커뮤니티센터 ▲귀어귀촌빌

리지(8개 동) ▲돌머리 방앗간 ▲해수찜센터 ▲돌머리·주포항 시설 및 경관 정비 등이다. 군은 다음달 돌머리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기존 해수찜장, 갯벌탐방로 등의 시설을 개선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휴양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해수와 유향석을 활용해 따듯하며 쌓인 피로를 풀 수 있는 돌머리 해양치유(해수찜)센터도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운영할 예정이다. 해수찜센터는 지상 2층, 연면적 1천122㎡ 규모로 건립되며, 해수탕, 해수찜, 사우나, 카페 등 치유와 휴양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갖춘다. 이상의 군수는 "군민과 관광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실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연수 기자

신안, 내달부터 천일염 본격 출하

농·수협 온라인 판매 중단은 양파·마늘 정책수매 겹친 여파

전국 최대 천일염 생산지인 신안군이 7월부터 천일염을 본격 출하한다. 20일 신안군에 따르면 봄철 강우 일수 증가로 천일염 생산량이 평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이달부터 기상 여건이 양호해 평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으며 관내 6개 농협(비금·도초·남신안·북신안·임자·압해)이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천일염을 출하한다. 이철순(사)신안군천일염생산자연합회 회장은 최근 이사회를 긴급 소집하고 "천일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생산을 독려하고, 정부와 군의 대책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농·수협의 온라인(택배) 판매

중단은 양파·마늘의 정책수매 일정과 겹잡스런 천일염 주문 폭주로 인력 부족과 물류 업체의 물량 과다로 인한 것이라며, 수매가 완료되는 오는 22일 이후부터는 인력을 총원해 유통할 계획이다. 또 햇소금도 본격 매입할 예정이다. 박우량 군수는 "천일염이 다음달 본격 출하되면 올해 김장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고품질의 신안 천일염을 산지에서 적정 가격에 구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신안에서는 749여가가 매년 4-10월 연평균 23만가량을 생산하고 있다. /신안=양홍기 기자



"한 손에 꼭! 애플수박 맛보세요~"

해남, 당도 12브릭스 이상 출하

작지만 아무진 맛, 한 손에 들어오는 해남 애플수박이 본격 출하되고 있다. 20일 해남군에 따르면 일반 수박의 1/4 크기인 애플수박은 소형과일을 선호하는 1-2인 가구 소비 트렌드와 맞아떨어지면서 수박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깍아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껍질이 얇은 데다 한번에 다 먹지 못하고 보관이 어려운 수박의 단점을 해결하면서 부담없이 사 먹을 수 있는 과일로 부각되고 있다. 해남군에서는 올해 4동가가 1ha 면적에서 애플수박을 재배하고 있다.(사진) 특히 해남에서 생산되는 애플수박은

미네랄이 풍부한 황토밭에서 재배돼 당도가 12브릭스 이상으로 높고, 1.5-2kg 내외의 고른 크기로 상품성이 좋아 최상급의 상품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최근에는 대형 수박에 비해 당도가 떨어진다든 편견을 깨고 품종 개량과 재배기술 개발로 고품질 애플수박이 속속 생산되면서 소비시장 규모를 넓혀가고 있다. 해남군 육천면 서명기(60)씨는 "올해 일조량이 좋고, 수년 간 쌓아온 재배기술 매뉴얼이 정립되면서 당도가 13브릭스 이상 나올 정도로 매우 작황이 좋은 편"이라며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 수박시장의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수익면에서도 뒤지지 않아 농가의 기대도 크다"고 전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목포시, 내달부터 시내버스 정상 운행

노선권 공영화 추진...노선개편안 등 시민 의견 수렴 감정평가 토대 직영 공영제·노선입찰형 준공영제 혼합

목포시가 7월부터 시내버스 정상 운행과 함께 노선권 공영화를 골자로 한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20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시내버스 회사와 수차례 논의한 결과 버스 정상 운행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7월 1일 이후에도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된다. 또 시내버스 안정화 방안과 함께 근본적인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은 ▲정책 추진의 법적 권리 확보를 위한 버스회사 소유의 노선권 공영화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노선체계 개편 ▲경쟁과 균형이 있는 운영체계 확립 ▲도시·교통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체계 구축 등이다. 박 시장은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는 노선권의 공영화가 필수적이며 시내버스의 공공성·안정

성·시급성을 감안하면 사업의 양도·양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의 양도·양수에 필요한 자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 시의회, 버스 회사가 각각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해 7월 말까지 노선권 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다. 차량·CNG 충전소 등 시내버스 운영에 필요한 유휴자산 평가를 진행해 순차적으로 시내버스 공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내버스 운영체계에 대해서도 연구 용역의 결과와 다양한 전문가의 검토

결과를 기초로 직영 공영제와 노선 입찰형 준공영제를 결합한 혼합형 운영체계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이 시 전체 정책 중에서도 중요도가 매우 높은 만큼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추진한다. 다음달부터 시민 공론화를 진행해 노선권 공영화, 노선체계 개편, 운영체계 확립 등 3개 주요 안건을 논의한다. 박홍률 시장은 "현재 시가 직면한 시내버스 상황은 국내에서 사례가 없을 정도로 난해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혁신적인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을 준비했다"며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이라는 좋은 정책을 좋은 과정을 거쳐 수립하고자 시민 공론화 과정, 정책브리핑을 거칠 계획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나주애배움바우처' 사용기관 모집

내달 14일까지...평생학습 바우처 사업 전남 내 첫 시행

나주시가 시민의 보편적인 평생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민선 8기 공약인 '나주애배움바우처' 사용 기관을 모집한다. 나주시는 "최근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바우처 등록을 희망하는 평생학습 교육기관 120여곳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나주애배움바우처'는 시민 누구나 평생학습을 폭넓고 다양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연 15만원의 학습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만 19세 이상 시민 2천500명을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도내 지자체 중 평생학습 분야 바우처 사업은 나주시가 최초다.

시민이 원하는 폭넓고 다양한 학습과 활동 참여는 물론, 문화·예술, 여가·스포츠, 공예·체험 등 평생학습을 제공하는 지역민들의 소득 창출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회는 지자체 평생학습 바우처 운영사례, 홍보 영상, 사용기관 등록 설명, 퍼실리테이터를 통한 당일 현장 등록지원·상담 등으로 진행됐다. 시는 나주애배움바우처 설명회를 기점으로 시민이 보다 폭넓고 다양한 기관에서 배움을 선택, 수강할 수 있도록 사용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사용 기관 등록은 연중 수시로 하고 있지만 다음달 14일까지 집중 모집한다.



등록 조건은 관내 성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바우처 카드로 수강료 결제가 가능한 기관이다. 단 골프·당구·볼링 등 오락성 분야, 운전면허·보습학원·과의 형태로 운영하는 교육기관 등은 제외된다. 사용기관 등록은 나주시평생학습정보망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등록 시 프로그램 운영계획서와 업체·업종

이 교육서비스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교육기관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한편 나주시는 다음달 20일부터 만 19세 이상 시민 2천500여명을 대상으로 학습자도 모집한다. 나주애배움바우처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등록 신청은 시청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339-4672·4676)으로 문의하면 된다. /나주=정종환 기자

완도군 '스마트 관광 안내 지도' 구축

완도군은 20일 "인터넷·스마트폰 대중화 시대에 맞춰 '스마트 관광 안내 지도(사진)'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관광 안내 지도'는 인터넷 주소창에 'wando.dacdoe.kr'를 입력 또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거나 '완도군 스마트 관광 전자 지도' 앱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 관광 안내 지도에는 해수욕장, 문화재, 공원, 청산도 슬로길 등 주요 관광지 정보는 물론 내비게이션·길찾기 기능 등 교통과 맛집, 숙박업소,

행사 등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특히 관광지별로 아이콘을 적용해 관광지의 특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성했고, 스탬프 투어 등 관광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음성 안내 기능과 외국어 기능도 추가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